

P15. 인터넷 이용자의 녹색관광 요구 분석

조록환*, 이한기, 박은식, 고정숙, 조영숙, 황대용, 강경하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생활연구소

도시민들은 자연과 유리된 생활에 염증을 느끼게 되어 주말과 휴일이면 도시를 탈출하여 대자연과 좀더 가까이 하려 농촌과 어촌의 산, 강, 들, 바다 등의 품속으로 찾아가게 되었다. 앞으로 도시민들이 자연을 찾아 나서는 현상은 증가할 것이며, 도시민의 관광패턴도 현대문화 및 인공조형물을 구경하는 관광에서 점차 대자연속에서 지역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면서 즐기는 형태로 변화하기 시작했으며, 동반자도 단체 중심의 대중관광에서 가족중심의 관광이 늘어나고 있으며, 형태도 녹색관광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 농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농촌과 농업자원을 개발하고 볼거리를 제공하는 녹색관광개발이 농촌살리기에 중요한 실천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녹색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요 고객층인 도시민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한 전략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녹색관광의 요구를 파악하고자 전국 네티즌 1394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설문조사를 하여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조사기간은 2001. 12. 13일~17일까지 5일간이며, 조사내용은 성별, 연령, 고향, 직업 등의 일반사항과, 녹색관광 선호도, 여가시간, 희망녹색관광활동, 숙박시설, 시기, 빈도 등의 녹색관광에 관한 사항, 농촌활성화에 대한 의식과 태도 등이었다.

응답자의 성별구성비는 여자 57.9%, 남자 42.1%였으며, 연령분포는 20대가 62%로 가장 많았고, 30대 26%, 40대이상 12% 순이었다.

거주지는 대도시 62.3%, 중소도시 28.6%, 농촌지역 9.1%이며 고향은 농촌 38.6%, 도시 61.4%였다. 결혼상태는 미혼 68.1%, 결혼 31.6%, 기타 0.3%였다

녹색관광을 계획할 때 고려하는 사항에 대한 응답은 여행지, 비용, 교통편, 시간, 숙박 순이었으며, 녹색관광시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숙박시설, 교통, 주변환경불결, 요금비쌈 등의 순으로 많이 응답하였다.

선호하는 관광유형은 녹색관광, 명승고적, 스포츠, 유원지 관광, 도시관광 순이었다. 또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될 경우 여가시간의 변화에 대한 응답은 '조금늘어남', '변화없음' '많이 늘어남' 순이었다.

경험한 녹색관광 형태는 바다/해수욕, 등산, 자연경관구경, 강/호수 구경 등의 순이었고, 앞으로 희망하는 녹색관광 활동은 삼림욕, 주말농장, 자연경관 순이었다.

농촌체험 녹색관광 희망시기는 5월이 27.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4월, 10월 순이었으며, 희망활동은 야외활동이나 자

연관찰', '향토음식/특산물 요리 즐기기', '농산물 수확 체험' 등의 순이었다.

농촌체험 희망기간은 2박3일, 3박4일, 1박2일 순이었으며, 농촌체험시 희망하는 숙박 시설은 통나무집, 한옥민박농가, 황토집 순이었다.

농촌·농업관광에 대한 요구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관광활동 문항 25개를 선정하여 측정된 결과, 비교적 긍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요구 성향을 보면 농촌의 자연자원과 농업관련 내용에 관한 관광 여가활동에 대한 요구정도는 대부분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는 깊은 숲 속에서 맑은 공기 마시기, 조용히 쉬기, 밤하늘의 별보기, 자연관찰, 농산물 축제, 관광지 산책, 산채/버섯 채취, 농산물 수확, 고기잡이, 자녀/어린이와 자연학습, 전통 공예품 제작 등이었다. 요구 정도가 높은 내용은 자연과 즐기기, 휴양휴식을 취하며, 재미있고 뜻있는 체험학습활동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일상적인 모내기, 가축기르기, 나무심기, 곤충채집활동은 상대적으로 요구도가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녹색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도시민들이 더 즐겁고 유익하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2001년 녹색관광 요구도는 1998년도 조사와 비교해 보면 증가한 항목은 별 감상>향토요리 체험>전통공예품제작 체험>낚시 체험>지역농산물축제 참관>그림, 사진찍기 등 취미활동 순으로 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감소한 항목은 밭 빌려 야채 재배하기>지역전래 이야기 듣기>자녀와 농사체험하기>산림작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보면 자연과 함께하기, 휴양휴식, 재미있고 뜻있는 체험학습활동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 힘이 드는 일상적인 농사체험이나 활동 대한 요구도는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농촌의 어려운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88.6%가 농촌이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녹색관광이 농촌의 소득증대와 활력화에 도움을 주는 정도에 대해서는 도움을 준다는 응답이 71.3%였으며, 도움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는 특산물구입, 숙박료, 식사비, 체험활동 보상 순이었다. 구입을 희망하는 상품은 지역 유명농산물이 52.2%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전통/향토식품, 공예품 순이었고, 직거래를 희망하는 비율은 91.9%나 되었다.

녹색관광정보에 관한 메일서비스를 받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82.5%였으며, 녹색관광 설문조사 모니터가 되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69.3%로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녹색관광 정보의 메일서비스를 통하여 수요를 확대할 수 있으며, 모니터를 통한 인터넷 설문조사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더 효과적으로 녹색관광 요구도를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녹색관광에 대한 요구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녹색관광개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정지역과 우수농특산물에 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녹색관광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청정지역, 자연경관, 농특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므로 이점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겠다. 모내기, 가축기르기 등 힘이 많이 드는 프로그램을 가급적 지양하고 보다 재미가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하겠다.

둘째, 새로운 숙박시설을 건설할 때 운치가 있으며, 아울러 보양이 될 수 있는 숙박시설을 준비하도록 한다.

넷티즌으 희망숙박시설은 통나무집, 황토집 등의 순이어서 숙박시설의 활용과 건축시 이점을 유의하여 개인과 마을의 여건에 맞게 건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셋째, 녹색관광을 희망하는 시기는 5월, 4월, 10월 순으로 많이 응답하고 있어 이 시기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4, 5월의 꽃과 녹색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과 10월의 수확과 단풍을 주제로 하는 프로그램이 마련하면 좋을 것이다.

넷째, 관광객이 선호하는 관광기간은 2박3일, 3박4일, 1박2일 순이어서 종전의 단일형, 1박2일 프로그램 보다는 2박3일, 3박4일 프로그램을 준비한다면 앞으로 주5일 근무제 이후의 수요일에 대비할 수가 있다.

다섯째, 농산물구매를 통해 녹색관광마을의 수익을 증가시키도록 노력해야한다.

녹색관광을 통해 농촌에 도움을 주는 방법은 농산물구매, 숙박비, 식사비, 체험프로그램 이용료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청정, 저공해 농산물이나, 특산물을 개발하고 도시민들이 직접 먹어보는 체험을 하도록 하여 거래를 늘려나아가야 할 것이다.

농가에 도움을 주는 방법은 농산물구매가 가장 많았고, 숙박 식사 체험프로그램보상 순이었다. 녹색관광개발에서 있어서 지역의 농특산물 생산과 가공에도 많은 노력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녹색관광 모니터시스템의 구축과 녹색관광정보의 이메일 서비스를 확산하여 방문객들에 정보를 알려 주며, 서로서로 정보교환을 통하여 전국에 알리도록 해야한다.

녹색관광 정보의 메일서비스에 대해 응답자의 82.5%가 제공받겠다고 하였으며, 모니터로서 녹색관광 설문조사에 응답하겠다는 비율이 69.3%나 되어 앞으로 인터넷 설문조사 모니터를 선정하여 녹색관광 요구도 조사를 하면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녹색관광수요를 확대하는 데 녹색관광정보의 메일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